

목장교재 목자용 목자지침서

<운명을 바꾸시는 예수님>

10/21(주일) 설교 내용

요한복음 9:1-12

1.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맹인과 같이, 내가 만난 고난을 통해 결국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나타내는 경험(하나님께서 더 좋고 선한 방법으로 인도해 주신 경험)이 있다면 나누어 봅시다.

우리가 고난을 만날 때, 우리는 그 상황만을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마치 오늘 말씀속에 등장하는 맹인과 그 주변 사람들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고난에는, 그에 대한 이유와 목적이 있으며, 그 이유와 목적이 '미래'에 있는 경우가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신앙인들에게 주시는 어려움은, 단지 어려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을 통해 도리어,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지요.

우리 인생 속에서 그런 경험이 있다면 함께 나누도록 해주십시오.

2.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과거의 경험에 매여 있지 말아야 합니다. 혹, 내 마음속에 여전히 나를 사로 잡고 있는 과거의 잘못과 실수들이 있다면 함께 나누어 봅시다.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목원들에게 기도 요청을 해보면 어떨까요?

1번 실분에서 나누었던 것처럼, 신앙인들에게 주시는 대부분의 어려움은 그 이유가 '과거의 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소망'에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를 사로 잡고 있고, 내 마음에 해결되지 않은 죄책감 또는 신앙적 거리낌이 있다면 목원들과 진솔하게 나누어 봅시다.

3. 맹인은 예수님의 상식적이지 않은 치료법(진흙을 눈에 바름)을 거부하지 않고 순종합니다. 결과적으로 그 순종으로 인해, 그는 맹인 거지의 삶을 청산하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됩니다. 이 말씀을 나에게 적용해 보며, 지금 내가 신앙적으로 순종해야 할 모습은 어떤 것일지 함께 나누어 봅시다.

예수님께서 맹인을 지유하시는 모습은 독특했습니다.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눈에 바르는 것이었습니다.

다소 비상식적으로 보이는 이 치료법을, 맹인은 거절하지 않고 순종합니다. 그 순종은, 그에게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해준 계기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각자에게 이 말씀을 적용해 볼 때,

오늘 내가 '신앙적으로 순종해야 할 모습'이 무엇일지 나누도록 해주십시오. (예, 주일성수, 새벽예배, 십일조, QT, 등등)

혹, 누군가에게는 '당연한 일'이, 누군가에게는 '순종해야 할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신앙적 차이를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